

물리치료학과 전공수업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

김지원 (백석대학교)

논문초록

기독교세계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독교학문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전공수업의 현장에서도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상적인 기독교세계관의 연구를 넘어 학생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고 실천해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학문에서 전공 교수들의 수업을 통해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전공수업에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수업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보건의료분야의 기독교세계관 적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해 나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대학에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 과목을 수강한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이 적용의 인식과 실천, 임상실습을 통한 의료의 문제와 이들 문제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의 대안 및 수업을 통한 의식의 변화에 대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에세이를 분석한 후,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에세이를 분석한 결과, 수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학생들은 관계성의 회복,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학생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성실히 학업에 임하고, 환자 중심/ 환자 사랑을 실천하는 치료, 관계회복을 위한 실천, 기도와 말씀묵상을 실천하는 것으로 말하였다.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환자보다 병원의 수익을 우선하는 현실의 문제, 환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소통의 문제였다.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본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환자 존중과 사랑의 실천, 관계성 회복실천을 언급하였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가치관(시각) 변화의 계기가 되었고, 진지하게 보건의료계의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생각의 차이를 인지하고, 자기반성을 통해 행동의 변화 및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기독교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발표와 토론 수업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 중에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이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종교에 대하여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가 아닌 자유스러운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을 때 학생들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토의를 이어갈 때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또한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각 학문영역에서 기독교학문을 추구하는 것이 믿는 학생들의 믿음을 공고히 하고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할 뿐 아니라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분야에 포함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기독교세계관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각 학문 영역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기독교세계관, 물리치료학, 보건의료, 신앙과 학문

I. 서론

기독교대학의 존재이유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기독교 인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목이나 헌신적인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의 영적성장을 돕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교수들이 학생들의 영혼을 구속함과 함께 각각의 학문영역에서 기독교학문을 연구하고 그 연구의 결과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은 비기독교 사상의 보루가 되어버렸다. “오늘날 세속 대학에서의 일차적인 관심은 학문이나 취업이지 인성함양이 아니다(유재봉, 2014: 97).” 심지어 기독교 이름을 사용하는 대학들조차도 비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다(Overman and Johnson, 2003: 19).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신앙을 가진 교수와 학생들이 학문의 영역에서 서있을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기독교대학에서 다양한 복음화 사역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성장을 돕는 것이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다. 하지만 전공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전공학문을 공부한 후 세속화된 사회에 나아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과 논의가 없다면 학생들은 졸업 후 사회 속에서 온전한 기독교신앙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대학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목적은 단지 남성과 여성을 경건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엄격함의 끝은 단지 반계몽주의자(obscurantist)들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기독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Eliot, 1940: 22).”

엘리엇(Eliot)의 말처럼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각 전공학문 영역에서 기독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한다.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기독교적인 미션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지만 전공학문을 학습한 후 사회에서 살아가야할 학생들이 기독교지성을 개발하지 않고 사회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 소명으로 받은 사역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학문영역에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전공과목 또는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하여 기독교지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지성을 갖춘 인재 양성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각 대학의 설립 취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학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국내의 일부 명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생존의 문제에 얽매임에 따라 대학 본연의 목적을 잊은 채 각종 지표에 매여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교육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의 취업률과 국가시험합격률이라는 숫자에 매여 전문적 지식의 교육에만 지나치게 치우침에 따라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성인을 배출하는 교육에는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된 교육이란 단지 기술자처럼 한 분야에만 정통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Schaeffer, 1968: 23). 따라서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각 전공영역의 전문지식과 함께 자신이 속한 분야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을 위해 각 전공수업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신앙과 학문 통합에 대한 수업사례 에세이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학생들이 사고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습관이나 태도를 기르게 되었으며,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확인 뿐 아니라 삶과 진로의 목적이나 방향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은실, 2010: 123). 따라서 전공학문 분야에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육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학생들 자신이 공부하는 학문분야에 대하여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삶의 태도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물리치료의 역사는 다른 보건의료분야에서와 같이 해외에서 파견된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실제 전공학문의 수업에 있어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물리치료 교육과정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김지원, 2011: 300). 보건의료분야 중 의학 분야는 의료윤리, 간호학은 간호윤리 등의 과목이 운영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76개 대학의 물리치료학과 교과목을 조사한 결과 단지 4개의 대학에서 윤리관련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지원, 2012: 70). 이와 같이 물리치료 전문인을 양성하는 많은 대학에서 윤리에 대한 과목의 교육과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나치게 기술 위주의 전공지식 교육에 집중한 현 보건의료 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기독교신앙을 가진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도덕적 논쟁들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김지원, 2011: 308). 따라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전공지식의 습득과 함께 피어시(Pearcey, 2004:69-70)가 그의 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분야의 중심주제에 대하여 성경적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즉, 기독교지성을 갖춘 보건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II. 물리치료학과 전공수업에서 신앙과 학문 통합 사례

1.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 교과목 개요

저자는 해부학을 전공하고 학생들에게 해부학, 기능해부학, 신경해부학, 임상신경학, 인체운동학 등의 과목을 강의하여왔다. 기독교신앙을 가진 교수로서 초기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접근은 홈즈(1987)가 언급하고 있는 네 가지 접근방법 중 태도적 접근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독교신앙을 가진 교수임을 학생들에게 밝히고 복음을 전하고 교육의 현장에서 받은 소명에 따라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였고, 인체의 복잡하고 정밀한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며 창조자가 없이는 이러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해부학, 신경해부학 등의 전공수업을 통해 지적설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각 전공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수업의 분량이 있어 기독교세계관과 관련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표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교육철학, 교육목표, 학습목표를 가지고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표1> 물리치료윤리 교과목의 교육철학, 교육목표, 학습목표, 교과목 개요 및 주요개념

과목명	물리치료윤리
교육철학	나는 가르치는 것이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함과 함께 지식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깨달음의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목표	기독교신앙을 가진 보건의료인으로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것과 함께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보건의료분야를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독교지성을 갖춘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학습목표	인간행동의 판단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윤리적 이론을 이해하고 이러한 기준의 장단점을 파악한다. 기독교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개념을 이해한다.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해한다. 기독교지성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발생한 윤리적인 문제(배아복제, 유전자 조작, 안락사, 장기이식)에 대한 논점을 이해하고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물리치료사로서 임상치료현장에서 치료사와 환자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병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다.
교과목 개요	본 강의는 물리치료사들이 임상치료현장, 교육 및 연구현장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판단기준(규범)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독교지성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이론을 교육하고 임상, 교육,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접근방법 등을 다룬다.
주요개념	기독교세계관 기독교지성 보건의료분야의 윤리적 문제(줄기세포, 안락사, 장기이식 등) 기독교물리치료사

2.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 운영 사례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 교과목의 개발은 기독교신앙과 물리치료학의 통합을 위한 방안 연구(김지원, 2011)를 통해 필요성을 언급하고, 2012년 기독교보건학회 학술대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후(김지원, 2012), 2013년 2학기과 2014년 1학기에 실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각 주차별 강의 내용은 <표2>와 같다. 2013년도 2학기 첫 학기의 13주차 강의에서는 졸업 후 물리치료사로 근무

하고 있는 기독교신앙을 가진 B대학교 졸업생 2명을 초청하여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사의 삶>이란 주제의 특강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특강자들은 신앙인으로 교회봉사 등에 대한 내용과 물리치료사로서의 삶에 있어 분리된 이야기를 하여 기독교세계관을 가진 기독교물리치료사로서의 삶을 나누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만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2014년도 2학기 수업에서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식으로 수업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4, 5주차 수업인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한 기독교세계관은 기독교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개념을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한 연구결과를 모델로 제시하였다(김지원, 2013: 102-105).

<표2> 주차별 강의 내용

주차	제목	내용
1	윤리란?	윤리, 윤리학, 공리주의, 의무론, 신명론의 개념
2	기독교세계관이란?	창조, 타락
3		구속, 완성
4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한 기독교세계관이란?	세상적 건강관과 성경적 건강관
5		훼손된 건강의 구속
6	보건의료분야에서 기독교지성	기독교지성의 정의와 보건의료분야의 기독교지성
7	수시고사	수시고사
8	보건의료분야의 윤리적 이슈1: 배아복제	발표 및 토론
9	보건의료분야의 윤리적 이슈2: 유전자 조작	
10	보건의료분야의 윤리적 이슈3: 안락사	
11	보건의료분야의 윤리적 이슈4: 장기이식	
12	임상현장에서 윤리문제 1	
13	임상현장에서 윤리문제 2	
14	기독교신앙을 가진 물리치료사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15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B대학교 물리치료학과 4학년 학생 중 2014년 1학기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과목을 수강한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중 6명이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고 나머지 4명의 학생은 무교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B대학교의 보건학부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 교과목의 수강 후,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의 적용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기독교세계관의 틀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적용해 나아가려고 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기 중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업이 종료하는 시점에 5가지 질문에 대한 에세이를 받아 검토 후,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3>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 적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분류

질문	응답 분류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의 적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관계성의 회복으로의 인식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
보건의료전문가의 삶에서 어떻게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해 나아갈 것인가?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성실한 학습 환자 중심/ 환자 사랑의 실천 관계성 회복의 실천 기도와 말씀묵상의 실천
임상실습을 통해 본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의 구체적인 예를 적고, 당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였는가?	환자보다 병원의 수익을 우선하는 현실 환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임상실습을 통해 본 문제점에 대하여 기독교세계관의 틀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환자 존중과 사랑의 실천 관계성회복을 실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어떠한 의식의 변화를 얻었는가?	가치관 및 시각의 변화 보건의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 행동이 변화와 결심

IV. 분석 결과

1.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의 적용에 대한 인식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관계성의 회복으로 인식하거나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 1) 관계성(하나님과의 관계성, 동료의료진 및 환자와의 관계성) 회복으로의 인식

일부 학생들은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 및 동료의료진 및 환자와의 관계성 회복으로 인식한다고 언급하였다.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단지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사와 환자와의 관계성만을 생각했던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및 동료 의료진과의 관계성으로 보다 포괄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음을 말하였다.

이번 수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한다는 것이 단순히 환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다른 보건의료인들과의 관계의 회복에도 확대하여 적용한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다. 수업을 듣기 이전에는 기독교신앙을 가진 치료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것만 생각하였다. 내가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만 말이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환자만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의료진과의 관계 등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질병의 발생과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

기독교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환자를 포함해 모든 의료진들과의 관계에서도, 또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지혜로워야 하고, 올바른 세계관을 통해 바라봐야 한다. -정○○-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질병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것으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노력해야 한다. -오○○-

보건의료의 본질을 회복하고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아가 환자의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환자의 영혼을 위해서 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윤○○-

2)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

이 유형의 학생들은 예수그리스도가 병자를 돌보는 심정으로 보건의료인들도 환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기독교세계관이란 예수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치료를 적용하자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환자의 아픈 곳을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치료해주는 것이다. 요즘 병원들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환자를 치료해주는 것 같다. 치료가 목적이 아닌 돈이 목적이 된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본받아 행할 때 좀 더 가치있는 치료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 오○○-

기독교세계관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보건의료는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또는 건강상태라는 것이 중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병든 자를 붙잡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최○○-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기독교세계관을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한다는 것은 통증이나 장애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치료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치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숭고한 일이 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되고 치료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일어나는 비리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치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조○○-

그 밖에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다.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의 경우 기독교 세계관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언급하였지만, 환자를 사랑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환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의 적용은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인이 아닌 나는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과는 너무 다르다. 하지만 기독교세계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사람을 귀하여 여기며 물질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고자 하는 세계관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신○○-

돈이 우선이 아닌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보건의료인들이 늘어난다면 보건의료계에서 생기는 많은 잘못된 일들이 고쳐질 것이라 생각한다. -손○○-

2.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의 실천에 대한 방법

보건의료분야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성실히 학업에 임하고, 환자 중심/ 환자 사랑을 실천하는 치료, 관계회복을 위한 실천, 기도과 말씀묵상을 실천하는 것으로 말하였다.

1)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성실한 학습

학생들은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현재 학생의 신분에서 학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말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건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물리치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 나보다 환자를 우선해 생각하는 치료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환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환자를 위한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다. 치료사의 본분을 다하는 것부터가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손○○-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는 우리가 배우고 연구한 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환자에게 더욱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배워야할 것이다. -오○○-

내가 사랑하는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아픈 환자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통증을 줄여주고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또 그 희망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환자에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부를 통한 지식의 습득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

2) 환자 중심 / 환자 사랑의 실천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일부 학생들은 병원의 이익에 우선하는 치료보다는 환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환자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다.

기독교세계관이란 예수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치료를 적용하자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환자의 아픈 곳을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치료해주는 것이다. 요즘 병원들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환자를 치료해주는 것 같다. 치료가 목적이 아닌 돈이 목적이 된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본받아 행할 때 좀 더 가치있는 치료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오○○-

물질로 인해 임상에서 비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환자의 형편과 치료만을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환자들을 편애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마음과 객관적인 눈으로 치료를 행하고 싶다. -정○○-

저는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는 것이 곧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실습을 통해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 중요한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

3) 관계성(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의료인 및 환자와의 관계)의 회복을 실천

앞에서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관계의 회복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및 동료 의료인 및 환자와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언급의 내용 중 신앙이 없는 학생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반면에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이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도 도우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우리들 스스로의 관계회복을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

예수님은 관계중심적인 삶을 원하셨는데 치료사와 하나님과의 관계, 치료사와 환자와의 관계, 치료사와 동료 의료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며 이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

4) 기도와 말씀묵상의 실천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기 위한 고민한 후,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치료에 임하는 것을 다짐한 학생도 있었다.

보건의료전문의의 삶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해 나갈 방법에 대해 이번 강의를 통해 생각하여 보았다. 어떤 치료사가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한 치료사가 될 것인가? 창조, 타락, 구속의 틀 안에서 나는 어떤 일을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건의료 분야가 타락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치료사로써 살아가면서 구속에 해당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해 나아갈지 생각해 보았다. 먼저 치료를 하는 상황에서 매번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를 위해 기도를 하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다. 치료 전에 기도를 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잡고 무엇보다 치료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윤○○-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려면 일단 말씀을 읽는 것이 기본일 것 같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행동으로 옮겨 실천한다. -오○○-

3. 임상실습을 통해 본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크게 환자보다 병원의 수익을 우선하는 현실의 문제, 환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소통의 문제였다.

1) 환자보다 병원의 수익을 우선하는 현실

학생들이 언급한 보건의료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내용은 환자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병원경영의 현실이었다. 한 학생의 경우 병원임상실습을 통해 치료사의 부족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을 때 일반적으로 치료사의 손이 덜 필요로 하는 열전기광선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보았고, 이러한 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잘못되었다고 언급하면서도 병원경영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 중에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은 금전적인 문제로 생각된다. 임상현장에서 보면 열전기광선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치료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치료사가 직접 치료하지 않고 기구를 이용한 치료를 하는 것을 보았다. 환자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병원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을 했다. -오○○-

환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본다는 것은 기독교세계관의 틀 안에서 보다면 보건의료계의 타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건의료인이란 환자들을 위한 봉사자라 헌신이 먼저 고려되어야지 나와 병원에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주어진 환자를 사랑으로 최선을 대해 치료하며 헌신하는 것이다. 계속 사랑과 헌신으로 치료해가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을 통해 조금씩 바뀌어 갈 것이라 생각한다.

환자를 치료할 대상이 아닌 수익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병원에서 치료사가 환자를 많이 받지 않으면 질책을 받는 것을 보았다. 환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든 생각한다. -손○○-

실습을 통해 본 의료계의 문제점은 의료비용으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의 어려움 등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많았다. (중략)... -윤○○-

임상실습 당시 외래치료를 기다리다가 상태가 심각해져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치료사에게 뒤통을 주며 치료를 더 해달라고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러한 일들을 치료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나는 이러한 문제는 엄연히 치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조○○-

우리나라 재활병원의 수익체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조○○-

2) 환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두 번째로 학생들이 지적한 보건의료계의 문제점은 환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에 관한 것이었다. 환자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환자에게 막말을 하는 등의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실습병원에서 있던 일이었다. 당시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였다.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 부자들이 사는 곳이고 여기 오는 환자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에 있어 생각이 달라졌다. 부유하고, 부유하지 않고를 떠나서 환자를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께서는 “그렇기에 최상의 서비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환자의 경제상황을 기반으로 두고 의료서비스가 달라진다는 뜻이었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치료하든, 부유한 환자를 치료하든 환자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

(중략)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차별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보건의료인이라면 환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는지 등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환자의 치료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환자에게 막말을 하고, 환자보다는 병원의 이익에 중심을 두고 치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였다. -신○○-

매너리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나 따스한 돌봄을 찾기 어려웠다. 물리치료사들이 30분 간격으로 환자를 받고 쉬는 시간 없이 환자를 치료하다보니 매일 같은 일상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으로 보인다. -오○○-

환자를 대하는 치료사의 자세에 실망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직업의식이 없는 치료사가 많았다. 보건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신○○-

3) 동료 의료인과의 소통 문제

세 번째로 학생들이 병원실습 후, 지적한 보건의료계의 문제점은 동료의료인들과의 소통의 문제였고 그러한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로 결국 환자가 손해를 보는 결과를 지적하였다.

동료 의료인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있고 본다. 각 직종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지시만 함으로서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환자만 손해를 보는 것을 보았다. 병원 안에서의 구조와 소통이 문제이다. -최○○-

4. 임상실습을 통해 본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실천방안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본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환자 존중과 사랑의 실천, 관계성 회복실천을 언급하였다.

1) 환자 존중과 사랑의 실천

임상실습을 통해 본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하여 환자중심으로 환자를 존중하고 돌보는 치료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기독교세계관의 틀 안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녔다. 이러한 틀 안에서, 치료사들은 환자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돌봐야 한다. -신○○-

치료사 자신이 평소 싫어하던 나라의 사람이라도 적어도 병원 안에서는 환자와 치료사의 관계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치료해야 할 것이다. -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

(중략)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으로 생각하여 본다면 모든 문제점들은 그 본질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앞으로 과대한 이윤추구를 버리고 의료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하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맡은 환자들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하며 헌신하는 것이다. -손○○-

기독교인이자라면 지금 내가 하는 치료사의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며 그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조○○-

(중략)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였듯이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의 타락한 부분을 안타까워한다거나 우리가 손쓸 수 없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자를 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나 하나 바뀐다고'가 아니라 '나부터 바꾸자'라는 마음으로 환자를 사랑으로 대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 회복과 구속의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

2) 관계성 회복(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의료인 및 환자와의 관계)을 실천
그 외에 기타 의견으로 관계의 회복과 환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과 함께 환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고 대답한 학생도 있었다.

환자와 치료사의 관계, 동료의료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오○○-

5.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수업을 통해 배운 점과 변화의 내용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가치관(시각) 변화의 계기가 되었고, 진지하게 보건의료계의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인지하고, 자기반성을 통해 행동의 변화 및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1) 가치관 및 시각의 변화

흥미로운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기독교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한 점이다. 중간고사와 더불어 조사한 설문지 내용을 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기독교세계관,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업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학기 중간이후 발표 및 토론 수업을 통해 수업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토의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기독교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 수업이 기독교에 대한 나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꿔 준 계기가 되었다. 우선 이 수업시간에서 서로의 생각을 발표하며 서로가 어떻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들으면서 각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의료분야의 윤리적인 문제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만약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의료계의 윤리적인 문제가 나와면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다. -신○○-

저는 이 수업이 기독교세계관을 접목시키니 않고 일반적인 물리치료윤리에 대해 배우는 과목인줄 알았습니다. (중략) 수업시간에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의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인간이 어디서 온 것인지, 사후세계는 있는지 등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오던 저였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관점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기독교 과목을 필수로 들으면서 종교를 강요하는 듯한 말투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기독교과목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더욱 더 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업을 통해 기독교수업에서 배웠던 기독교세계관이 새록새록 기억이 났습니다. 그 때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아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주시고 자꾸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이 기독교에 대한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것 같습니다. -김○○-

건강과 질병에 대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갔던 건강과 질병의 정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가진 가치관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내 행동의 근거라든지, 종교적인 질문 등에 접하면서 수업이 흥미로웠다. (중략) 나는 수업시간을 통해 다양한 가치관, 특히 기독교세계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생각해보려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최○○-

2) 보건의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

본 수업을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여 보고 나중에 어떠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내가 이번 수업을 통해 배운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임상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독교세계관과 윤리를 배우지 못한 학생들과는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임상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보건의료윤리 수업을 통해 기독교, 특히 기독교세계관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특히 기독교세계관을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윤리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 훗날 임상에 나가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이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종교를 그냥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살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했다. -조○○-

3) 행동의 변화와 결심

수업을 통해 학생이 행동하는 하나하나에 이것은 기독교적인가 생각해보고 행동하게되거나 새롭게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중략)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서 나의 세계관이 기독교적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삶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과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기독교적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부족하고 가끔은 순종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내 욕심대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명확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정확한 방향을 제시 받은 것 같습니다. -윤○○-

(중략) 지금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학생 때에는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수업을 통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 똑같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중략) 항상 말로만 신앙의 회복을 하려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였으며 기독교세계관 수업을 통해 예전에 배웠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 -손○○-

그 외 일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생으로 교내와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학생들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하였다.

(중략) 주변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만 듣다가 비기독교인의 견해를 듣다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수업현장에서 학생들이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다섯 개의 질문에 답한 에세이 분석, 개별 면담을 시행하였다.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를 수강한 10명의 학생 중 6명이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학생이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 기존의 기독교 교양수업을 통해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왔으나 신앙이 없는 학생들은 학기 전반의 기독교세계관을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하는 이론수업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학생들도 중간고사 이후, 토론수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다.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학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 동료의료인 및 환자와의 관계성 회복으로 인식하거나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다. 관계성의 회복으로 인식한다고 언급한 이유는 3, 4주차 수업인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의 적용이란 강의에서 성경에서 언급된 건강에 대한 특성을 연구한 Wilkinson(1988: 27-58)의 연구를 토대로 건강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온전성을 의미한다고 보고한 연구(김지원, 2013: 97)를 수업시간에 설명하고 토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본 수업을 통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건강의 개념인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

적으로 안녕한 상태'을 넘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건강의 의미를 보다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깨달았다고 하였다. 질병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훼손된 결과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노력해야한다고 하였다. 이는 질병의 원인에 대한 생의학적 모델, 신체정신사회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 기독교세계관의 모델을 이해하고 인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적인 보건의료는 의료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라본 보건의료는 환자의 질병에만 집중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전인격적인 인간을 바라보고 예수의 구속 없이는 온전한 건강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건의료분야에서 실천하는 것을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언급한 내용은 환자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것이 보건의료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전체를 보지 못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타락의 영향력은 보건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동료의료진과의 관계 및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왜곡을 끼쳤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학생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성실히 학업에 임하고, 환자 중심/ 환자 사랑을 실천하는 치료, 관계회복을 위한 실천, 기도와 말씀묵상을 실천하는 것이라 말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크게 관계의 회복을 실천하는 것으로 통합하여 바라볼 수 있다. 즉,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나 자신과 온전한 관계성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환자 중심 / 환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기도와 말씀묵상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수업이 의도하였던 기독교세계관을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하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보건의료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은 환자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병원경영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을 언급하면서도 병원경영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차선의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불만도 줄이고 병원의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환자보다 병원의 수익을 우선하는 현실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의 경우는 치료사들이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료사와 환자 사이에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들은 치료사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문제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보건의료계의 문제점으로 언급한 것은 환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치료사의 자질과 관련된 내용으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서비스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 다른 보건의료계의 문제점은 동료의료인들과의 소통의 문제였고 그러한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로 결국 환자가 손해를 보는 결과를 지적하였다. 이는 보건의료가 전문화됨에 따라 각 직종 간의 이기주의로 인해 타 직종을 상호존중하는 의식의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수업을 통해 배운 점과 변화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 가치관 및 시각의 변화, 보건의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 행동의 변화와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기독교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발표와 토론 수업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 중에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이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종교에 대하여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가 아닌 자유스러운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을 때 학생들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교수의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점이었다. 수업의 초기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와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의 적용에 대한 내용의 수업을 하였을 때, 신앙이 없는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였으며 수업 중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에게는 거부감이 있는 수업이다’, ‘기독교에 근거한 수업임을 수강 신청할 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등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강의자 입장에서도 왜 이런 학생들이 들어와 수업의 분위기를 흐트러트리는 지 답답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분위기는 발표와 토론 수업을 하는 동안 바뀌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토의를 이어갈 때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또한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학생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각 학문영역에서 기독교학문을 추구하는 것이 믿는 학생들의 믿음을 공고히 하고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늘날의 세속화된 사회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대안적인 기독교의식을 발달시키는 것이 한 두 번의 회의나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Greene, 1998:10).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렵고 힘든 싸움이지만 성령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 교양수업과 채플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전공수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러한 가능성을 찾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수업을 통해 기독교신앙을 가진 교수로서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에 임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스스로 질문하며, 이 수업을 위해 스스로 얼마나 성령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성령은 ‘교사’ 또는 ‘내면적 교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이므로 하나님 지식·인간지식 교육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수단이나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과 가르치는 자로서 참여할지라도 이 모든 방법과 가르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교사로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할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항상 존재한다.”(총회교육자원부, 2007: 303). 본 강의의 개설 목적은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가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던 학생들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닫힌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 생각하지 못했던 수확이었다. 나는 의식하지 못하였으나 성령하나님께서 신앙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공활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으로 여겨진다.

“세속적으로 사고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으로만 한정된 증거들 속에서 사고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적 판단기준들에 뿌리를 둔 계산법을 고집하는 것이다. 반면에 기독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구속받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의 영원한 운명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된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Blamires, 1978: 51).” 각 학문영역에서 기독교세

계관에 근거한 학문의 연구와 교육이 세속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삶 전체적 걸친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 전공수업을 개설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물리치료학과 외의 다양한 보건의료관련 전공수업에 적용하여 보건의료분야에서 기독교신앙에 근거한 학문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분야에 포함된 다양한 학문들이 기독교세계관의 틀 안에서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각 학문 영역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지원 (2013).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의 적용과 실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 18(4). 93-114.
- _____ (2011). “기독교 신앙과 물리치료학의 통합을 위한 방안 연구.” 『진리논단』 . 17. 297-309.
- _____ (2012). “기독교세계관 근거한 물리치료를 위한 교과목 개발.” 제3회 기독교보건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67-80.
- _____ (2013).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의 적용과 실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 18(4). 93-114.
- 이은실 (2010). “대학수업에서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 『신앙과 학문』 . 15(2). 123-151.
- 유재봉 (2014). “세속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신앙과 학문』 . 19(3). 85-106.
- 총회교육자원부 (2007). 『개혁신학과 기독교교육』 .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Craig, W. L. (2004). *On being a Christian academic*. Addison, TX: Lewis & Stanley.
- Blamires H. (1978). *The Christian Mind: How Should a Christian Thinking?* 황영철 역 (1986).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 . 서울: 두란노.
- Eliot, T. S.(1940). *Christianity and Culture*. New York: Harcourt Brace.
- Edlin R. J. (1999).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학 분과 역 (2004). 『기독교 교육의 기초』 . 서울: 그리스.
- Pearcey, N. R. (2004). *Total Truth* 홍병룡 역 (2006). 『완전한 진리』 . 서울: 복 있는 사람.
- Wilkinson, J. (1988). *The Bible and Healing: A Medical and Theological Commentary*. 김태수 역 (2001). 『성경과 치유』 .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 Greene, A. E. (1998).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현은자·정희영·황보영란 역 (2001). 『알버트 그린 박사의 기독교세계관으로 가르치기』 . 서울: CUP.
- Harris R. A. (2004).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최용준 역 (2013). 『신앙과 학문의 통합』 .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Schaeffer F. A. (1968). *The God Who is There*. 김창영 (). 『거기 계시는 하나님』 . 서울: 생명의말씀사.
- Overman C. and Johnson D. (2003). *Making the Connections: How to Put Biblical Worldview Integration into Practice*. 김성훈 역 (2007). 『진리와 하나된 교육: 성경적 세계관에 따른 가르침의 실제』 .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물리치료학과 전공수업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논평

황기철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1. 논문의 목적과 논지

본 논문은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수업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 분석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에 포함된 다양한 학문들이 기독교세계관의 틀 안에서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 각 학문 영역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시도된 논문으로 파악된다. 본 논문은 각 전공학문 분야에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연구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분야의 중심주제에 대하여 성경적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즉, 기독교지성을 갖춘 보건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연구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눈으로 본 기독교세계관을 이해함으로써 기독교신앙을 가진 교수들이 학생들과 소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로 사료되며 각 전공분야에서 같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2. 논문의 공헌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영역의 전문지식과 함께 자신이 속한 분야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을 위해 각 전공수업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신앙과 학문의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실천하였다는 점이 공헌점이다.

3. 연구의 논의 및 시사점

첫째, 동료 의료인과의 소통문제는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재활의료 치료영역으로 대표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영역에서는 특히나 팀 접근이 강조되므로 동료 의료인과의 소통문제는 재활의료 영역의 전문가로서 당연히 지녀야 할 자질이므로 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질문에 대한 응답분류에서 답변이 대부분 “사랑의 실천” 또는 “관계성의 회복”을 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사랑”이 되어야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달란트 즉,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자신의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세계관을 자신의 일에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에서 제시된 매너리즘의 문제는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생각한다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독교세계관의 실천에 대한 방법에서 치료사가 치료 전에 환자를 위해 기도한 후 치료에 임하고 최선을 다하되 치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소유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기쁨으로 누리며 담대하게 행하면 될 것이다.

넷째, 기독교세계관 교육 시 본 연구의 연구자가 믿지 않는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믿지 않는 학생들의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는 계기를 마련해 준 점은 같은 기독교신앙을 가진 교수로서 본받을 점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가치관 및 시각의 변화에서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누구인지 등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기독교세계관 이해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변화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학생의 응답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 생각하게 하는 응답이었다.

4. 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

첫째, 연구절차에서 학기 중간에 설문조사, 5가지 질문에 대한 에세이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고 하였으나, 에세이 분석에 설문조사와 개별면담의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분석결과에 설문조사와 관련된 설문지 및 설문조사 분석내용이 논문에서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본문에서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5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분류에 있어 참여한 학생들의 응답을 내용에 따라서 잘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나 어떤 응답의견에 대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같은 응답을 했는지 전공학생들의 응답내용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퍼센트(%)가 제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후속 연구에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은 같은 의견의 응답을 하더라도 물리치료학 전공 학생들과 다른 퍼센트 경향을 보여 전공 간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그런 전공 학생들의 인식 특성을 각 전공분야 기독교세계관 강의 내용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체계에서 나오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각 전공 영역의 현실적인 사회구조 체계를 고려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학생의 수업을 통한 변화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환경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기독교적인가 생각해보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연구라 생각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활동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제 삶의 상황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활동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실제 삶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토론수업을 통해 믿지 않는 학생들의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듯이 믿지 않는 학생들과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독교세계관 전달을 위한 교수법, 예를 들면 위에서 제시한 활동수업 적용 및 영성을 바탕으로 한 인성개발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